

News

영란은행, 기준금리 0.1% 유지…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시사

연합뉴스

9월 통화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기준금리 동결... 자산확대 작업도 지속키로... 성장, 팬데믹 · EU와의 무역협정 등에 영향... 파운드화 가치 하락
유휴생산능력 감소,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등에 중대한 진전이 명백해지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배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 시사

시중은행 신용대출 단속에… 지방은행 금리도 곧 오를듯

조선일보

시중은행의 연 1%대 신용대출이 곧 사라져...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운영 중인 지방은행도 조절에 나설것으로 예상
"최근 지방은행 신용대출 역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 · 금리 조정을 시행하면 지방은행 역시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현금 확보 비상…시중은행 알짜 부동산 줄매각

데일리안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유휴 부동산을 잊달라 매각...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불필요한 보유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해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은행 영업점 폐쇄 가속화...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빅뱅크 VS 빅테크… 금융시장 '패권 전쟁' 불붙는다

국민일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빅테크와 디지털 경쟁에서 넘버원 플랫폼 금융회사가 되겠다"고 밝혀... 빅뱅크(대형 금융사)와 빅테크 간 패권 전쟁에 돌입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초대형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시장 쟁탈전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진출분야 역시 간편결제 및 송금,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전방위적

악사손보 매각 예비입찰 D-DAY… 누가 참여할까

머니S

악사손해보험이 오늘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나서... 업계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교보생명, 카카오페이 등 굵직한 기업들이 이번 예비입찰에 참여할지 관심...
"악사손는 사업이 자동차보험에 쓸려있고 영업채널도 한정적"... "다만 손해보험 판매면허, 디지털사업 확대 등 인수희망자들의 입맛을 당장 충족시키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보험사"

금융 불안 커지는데…생보사 '깜깜이 대출' 7조 돌파

데일리안

'내역 비공개' 10대 생보사 기타 대출 1년 새 3700억 ↑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배팅...코로나19 속 불안 증폭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차주들의 전반적인 대출 상환 여력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사의 여신 관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온다

내일신문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말 판매를 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

국민연금 CIO의 경고… "증시 불확실성 커져"

연합뉴스

해외투자 다변화로 대응계획... 국내 주식비중 너무 높일땐 매각때 시장에 큰 충격 우려...
"몇몇 종목에 지나치게 돈이 몰리고 있는데 만약 비가 내리면 (투자자들은) 진흙탕에 빠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자산을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